Hungarian Dances, WoO 1

- □□

정보

개요
곡명: Hungarian Dances (독일어 Ungarische Tänze), WoO 1 작곡가: Johannes Brahms (1833–1897)
원형: 피아노 연탄을 위한 21곡의 춤곡집
출판: 1–10번 1869년, 11–21번 1880년, N. Simrock
주요 관현악판 : Brahms의 1·3·10번, 그리고 여러 작곡가의 개별 편곡

IMSLP: 21 Hungarian Dances (Piano), WoO 1

Wikipedia: Hungarian Dances (Brahms)

작품의 성격

Johannes Brahms의 Hungarian Dances는 한 대의 피아노를 두 사람이 연주하는 연탄판으로 처음 묶인 21 곡의 춤곡집이다 . 네 권의 원판은 Book I 1–5번, Book II 6–10번, Book III 11–16번, Book IV 17–21번으로 나뉜다. 오늘날 자주 연주되는 관현악판은 Brahms가 직접 편곡한 1·3·10번과 Albert Parlow, Andreas Hallén, Paul Juon, Antonín Dvořák, Hans Gál 등 여러 편곡자의 판본을 합친 결과이므로 , 21곡 전체를
하나의 관현악 편성으로 다룰 수 없다.

성립과 출판

Brahms는 1853년 헝가리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Eduard Reményi와 연주 여행을 하며 도시의 헝가리풍
춤곡과 csárdás 연주를 접했다. 이 경험에서 얻은 선율과 리듬은 1850년대 후반부터 스케치로 쌓였고, 1868 년 가을에 1–10번의 피아노 연탄판이 정리되었다 . Brahms와 Clara Schumann은 1868년 11월 1일 Oldenburg의 사적 음악회에서 이 첫 묶음을 연주했다. 1869년 2월 Berlin의 N. Simrock이 두 권으로
출판하자 작품집은 빠르게 널리 알려졌다.

11–21번은 1880년 3월에 정리되어 같은 해 5월 3일 Bonn-Mehlem에서 Brahms와 Clara Schumann이 처음 연주했고, 6월 Simrock에서 두 권으로 출판되었다 . 현재의 21곡은 한 시기에 한꺼번에 완성된 모음이 아니라 두 출판 묶음이 합쳐진 형태다. The Morgan Library에는 1–10번의 1868년 자필 원고가 소장되어 있으며, Brahms-Institut Digital Archive는 네 권의 성립 시점과 초판 판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소요 시간

21곡의 피아노 연탄판 전곡은 반복과 루바토에 따라 보통 약 51–53분이 걸린다. 개별 춤곡은 대체로 1분에서 5분 사이이며, 1–10번 관현악판을 녹음한 Naxos 음반은 27분 23초로 제시된다. 관현악 발췌와 전곡 연탄판의 시간을 같은 기준으로 합산하지 않으며, 편곡자 ·템포 ·반복 여부가 실제 길이를 바꾼다.

원형의 편성과 네 권의 배열

원곡의 편성은 피아노 한 대를 두 연주자가 함께 사용하는 4손 연주다. Primo와 secondo가 높은 음역 ·낮은 음역, 선율 ·반주, 빠른 장식과 지속음을 나누어 맡으면서 작은 살롱에서도 두터운 음향과 대화가 생긴다. 작품의 공식 단위는 악장이 아니라 번호가 매겨진 개별 춤곡이며, 각 번호는 고유한 조성 ·빠르기 ·리듬을 가진다.

권	번호	원판에서 두드러지는 범위
Book I	1–5	G minor의 `Allegro`에서 F-sharp minor의 `Allegro–Vivace`까지, 느린 도입과 빠른 춤의 대비가 이어진다.
Book II	6–10	D-flat major·A major·A minor·E minor·E major가 이어지며, 10번은 원판 E major에서 관현악판 F major로 옮겨진다.
Book III	11–16	D minor와 D major를 중심으로 `Poco andante`, `Presto`, `Andantino grazioso–Vivace` 등이 교차한다.
Book IV	17–21	F-sharp minor에서 D major, B minor, E minor로 이동하며 Dvořák의 관현악판이 이 묶음을 대표한다.

1번 `Allegro molto` G minor, 3번 `Allegretto` F major, 5번 `Allegro–Vivace` F-sharp minor, 6번 `Vivace` D-flat major, 10번 `Presto` E major가 널리 알려진 번호다. 11·14·16번은 선율 출처 연구에서 Brahms의 독창적 기여가 특히 큰 번호로 판단되지만, 나머지 곡을 모두 익명의 민요로 분류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현악과 편곡 계보

Brahms가 직접 관현악화한 곡은 1·3·10번이다. Simrock의 요청에 따라 1873년에 편곡을 마쳤고, 1874년 2월 5일 Leipzig Gewandhaus에서 Brahms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세 곡의 관현악판은 피아노의 두 연주자 사이에 나뉘었던 선율과 리듬을 목관 ·금관 ·현악으로 분배하고, 3번에는 서주를 덧붙인다. Breitkopf & Härtel의 판본은 1번 G minor, 3번 F major, 10번 F major의 관현악 조성을 제시한다.

나머지 번호에는 단일한 표준판이 없다. Albert Parlow는 5·6번과 11–16번, Andreas Hallén은 2번, Paul Juon은 4번, Martin Schmeling은 5–7번, Hans Gál은 8·9번, Antonín Dvořák는 17–21번을 관현악화했다. Robert Schollum의 편곡과 최근 Iván Fischer의 전곡 관현악화도 별도의 계보를 이룬다. 원판 조성과 편곡판 조성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4번 F minor는 Juon 판에서 F-sharp minor, 5번 F-sharp minor는 Parlow 판에서 G minor, 6번 D-flat major는 Parlow 판에서 D major로 나타난다. 10번도 원판 E major와 관현악판 F major가 함께 기록된다.

Joachim의 바이올린 ·피아노판, Brahms가 만든 1–10번 독주 피아노판, Theodor Kirchner가 정리한 11–21 번 독주 피아노판은 연탄 원형을 다른 매체로 옮긴 사례다. Naxos의 1–10번 녹음은 Brahms, Hallén, Parlow, Schmeling, Gál, Juon의 편곡을 한 음반 안에서 비교하게 하며, 녹음의 27분 23초는 이 특정
관현악판의 연주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헝가리풍 양식과 선율 출처

19세기 서유럽에서 style hongrois 또는 “헝가리풍 ”이라고 부른 음악은 농촌 민요, 도시의 csárdás, 로마니 연주자의 해석, 작곡가의 편곡이 겹친 영역이었다 . Brahms가 접한 선율도 하나의 민족적 원천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Hyperion은 1번을 Miska Borzó의 Isteni Csárdás와, 5번을 Béla Kéler의 Bártfai Emlék과 연결하며, Banks의 연구는 이 작품집의 재료가 군악대 ·카페 악단 ·대중 연주자의 레퍼토리와도 교차한다고 분석한다.

특히 5번에 관해서는 Brahms가 Kéler의 창작곡을 전통 선율로 여겼다는 설명과, Eduard Reményi가 일부 선율의 저자성을 주장했다는 기록이 함께 남아 있다. 이는 19세기 편곡 ·저작권 ·저자성 논쟁의 맥락에서 읽을 자료이지, 작품 전체를 “표절 ”이라는 한 단어로 규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Maira Balacon은 style hongrois 의 리듬 ·장식 ·템포 ·즉흥성을 Brahms가 서유럽의 음악 언어로 구성한 방식과 당시의 “집시 ” 표상을 함께 분석한다. 이 비평적 틀은 연구자의 해석으로 귀속한다.

Brahms의 기여는 특정 선율을 채보한 데만 있지 않다. 서로 다른 춤의 느린 부분과 빠른 부분, 당김음과 장식, 루바토와 종지를 네 권의 연탄 형식으로 배열하고, 두 연주자의 음역과 리듬을 정교하게 맞춘 작업이 작품집의 구조를 만든다. 따라서 원곡의 선율 출처와 Brahms의 형식 ·편곡 작업을 같은 방식의 저자성 문제로 섞지 않는다.

번호별 연주 언어

각 번호는 짧은 춤곡이지만 , 한두 개의 선율을 단순히 반복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느린 lassú 와 빠른 friss 에 해당하는 보행과 질주의 대비, 갑작스러운 정지와 재출발, 짧은 악센트와 비대칭 프레이즈가
곡마다 다른 긴장을 만든다. 피아노 연탄판에서는 primo와 secondo의 교차가 이 변화를 직접 드러내고, 관현악판에서는 편곡자가 목관의 장식, 현악의 활 탄력, 금관의 강조, 타악기의 색채를 선택해 같은 번호의 성격을 다시 만든다.

1번의 G minor 행진감, 3번의 F major 선율, 5번의 급격한 템포 변화, 6번의 D-flat major 춤 리듬, 10번의 빠른 종지는 Brahms 관현악판에서 비교적 절제된 음향으로 정리된다. Parlow와 Dvořák의 편곡은 서로 다른 번호에 현악의 광택과 관현악적 추진을 부여하며, 편곡자별 차이가 곡집의 수용사를 구성한다. 번호에 따라 조성 ·편성 ·소요 시간이 달라지므로 , 한 녹음의 관현악 음향을 21곡 전체의 원형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수용과 기록

1869년 첫 두 권의 출판은 Brahms 생전에 큰 인기를 얻었고, Simrock은 플루트와 피아노, 두 바이올린과 피아노, 군악대 등 여러 매체의 편곡을 의뢰했다. 이 작품집은 살롱의 네 손 연주에서 독주 피아노 ·바이올린 · 관현악 레퍼토리로 확장되면서 서로 다른 연주 전통을 만들었다. Johannes Brahms가 1889년 녹음한 1번의

축약 연주가 가장 이른 녹음 자료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고, Joseph Joachim의 1·2번 녹음과 Leopold Stokowski의 1917년 5·6번 녹음은 후대 매체에서 작품이 이동한 경로를 보여 준다.

이 기록들은 작품의 정체성이 특정 관현악판 하나에 고정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피아노 연탄 원판의 두 연주자 호흡, Brahms 자신의 세 관현악판, 후대 편곡자의 조성 ·음색 선택을 나란히 놓을 때 WoO 1이 하나의 악기군을 위한 모음곡이 아니라 여러 매체가 서로 덧붙여 온 춤곡집이라는 범위가 분명해진다 .

주요 자료

Brahms-Institut Digital Archive, WoO 1
Breitkopf & Härtel, Ungarische Tänze 1·3·10
IMSLP, 피아노 4손판
IMSLP, 관현악판
Hyperion 작품 해설
Dvořák 관현악판 서문
Henle 작품 페이지
Morgan Library, 1–10번 자필 원고 Jon Banks, 초기 csárdás 녹음 연구 Maira Balacon 학위논문
Brahms-Institut 생애 해설
AllMusic 작품 해설
Naxos 1–10번 녹음
SLLMF 프로그램 노트